

	<b>보도자료</b>	2021. 11. 17(목)
	담당부서: 자치분권국 02-6788-3216	

## “윤석열 정권의 민생예산 삭감 반대”

### 2023년도 정부 민생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서 전달식

- 일 시: 2021.11.17.(목), 오전 10시 45분
- 장 소: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위원회(공동위원장 양승조·정원오)는 금일(11.17(목)) 오전 10시 45분에 『윤석열 정권의 2023년도 민생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서 전달식』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전달식에는 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최대호 안양시장, 이소라 서울특별시의원, 최동철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 이번 의견서는 2023년도 윤석열 정권의 민생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가장 시급한 민생예산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11월 5일(토)부터 11월 10일(목)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이번 설문조사 대상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이며 이들 중 500명이 응답하였다. 조사결과, 2022년도 정부 예산 중 시급히 회복되어야 할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민생예산들이 선정되었다.
  -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천억원 전액 감액) - 408명(81.6%)
  -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한시냉방기 지원 예산 (922억원 감액) - 331명(66.2%)
  - 도시재생사업 예산 (2,670억원 감액) - 233명(46.6%)
  - 임대주택 예산 (6.2조원 감액) - 225명(45%)
  -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환경개선 예산 (1,789억원 감액) - 200명(40%)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6,724억원 감액) - 183명(36.6%)
  - 균형발전지원사업 예산 (0.2조원 감액) - 178명(35.6%)
  - 스마트 지방상수도 예산 (2,192억원 감액) - 86명(17.2%)

- 또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2023년도 예산에서 민생만 긴축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였고, 조사결과와 민주당의 예산심사 방향 또한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예결위 심사 시 설문조사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을 민생긴축이 아닌 ‘민생안정·위기극복’ 예산으로 만들겠다고 응답하였다.
-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약자를 지키고 약자와 함께하는 민생정치 실현에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한 민생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붙임 : 전달식 사진첨부

2022년 11월 17일(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참 고]

